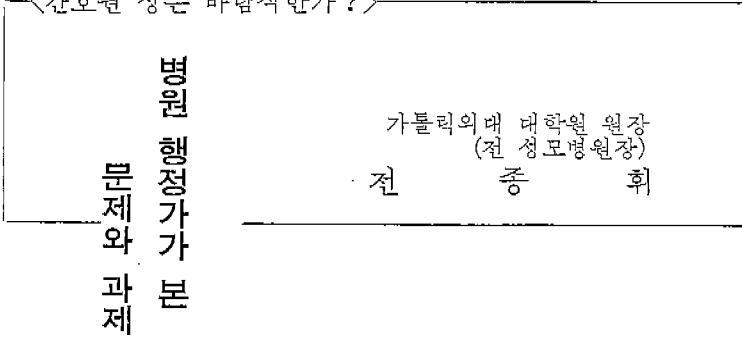


간호원 상은 바람직 한가?

〈간호원 상은 바람직한가?〉



병원행정가가 본 문제와 과제
간호교육자가 본 문제와 과제

심포지움 발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게 된 기회를 타서 이귀향, 이영복 두분 선생이 지은 “간호윤리·직업적 조정”이라는 힘든 책을 한번 꼭 훑어 볼 기회를 가졌다.

간호윤리의 서두인 머리말에서 “간호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는 (1) 박애정신 (2) 건강증진 고통경감 및 질병예방에 관한 충분한 과학적 지식과 아울러 (3) 환자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해박한 지식과 능숙한 기술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4) 간호정신이 결핍되어 있다면 바람직한 간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지적된 “간호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 “간호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바탕의 구체적인 조건들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 책을 통하여 간호원이 가져야할 바 정신적 자질을 간추려서 열거하여 본다면

- (1) 성숙된 인격 (간호원이란 완전하고 성숙된 인격을 갖춘 전문적인 직업이다)
- (2) 모든 도덕의 주축이 되는 정직
- (3) 환자 그 가족 및 의사로 부터의 전적인 신뢰
- (4) 박애정신을 봉사이념으로 하는 성실성
- (5) 인류애, 자기희생, 동정심 따위에서 이룩되는 봉사
- (6) 돌질 및 심신의 검약
- (7) 올바른 예의
- (8) 모나지 않고 동근 직업적 대인관계
- (9) 병원관리나 행정에 대한 협조
- (10) 사회참여 의식들 등

이런 것들로 요약 되는데 이것들의 총화가 “간호정신”으로 표현되는 줄로 생각된다. 위에 표현된 정신적 자질이 갖추어지고 간호의 지식이나 기술이 충분하면 바람직한 간호원상이 이룩될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는 급변하며 사회변천은 다양화하

여 감에 따라 간호원의 업무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그 범위가 넓어졌고, 복잡 다단하게 되며 대비하여 바랍직한 간호원상도 앞으로 크게 달라지리라는데 한번 모두들 생각을 기우릴 필요가 있다고 연자는 주장된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1장 총칙 제7조 간호원의 임무라는 조항을 보면 “간호원은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조문에 의하면 간호원의 업무는 참으로 광범위하여 진료 보조 이외에도 요양상의 간호 국민보건의 향상 또는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하여야 할 만큼 그 활동범위가 굉장히 넓으며, 한편 자율적으로도 행사할 업무들이 많이 허용되어 있다고 법은 보장하고 있다.

한편 의학자체가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범위가 넓어졌고 끝후에는 사회의학이라는 개념에서 인간생활에 관여되는 모든 문제가 의학과 의 접촉과 소통없이 해결되지 않음이 이해될 진대 의료에 있어 간호행사의 한계는 시대의 변천이나 사회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그 규모가 한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저 확대되기 마련인 것이다.

그 실례로서 의료의 질 및 범위의 확대, 사회적 요건의 변화에 따른 특수 질환의 증가(도시공해, 교통상해, 직업병, 정신 신경질환), 예방의학의 강조(건강관리, 의료 보험제도, 공비부담 의료의 충실) 따위, 그리 예기치 못하였던 문제들이 우리 보건일꾼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된 짐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문제의 해결에 있어 의사들만이 단독으로 책임지고 처리하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며 팀—워크로서만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 이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의

미에서 간호원은 의사들의 착한 조수라기 보다는 성실한 중요 팀 구성원이라는 이해가 앞서게 되는 것이다. 실제적인 특수 진료업무(예, ICU 나 CCU의 책임 간호원) 외에도 보건간호원, 모자 보건원, 결핵지도원, 가족계획원 따위의 대 사회적활동에 있어서의 간호원의 업무를 감안할때 여성인 간호원이 가지는 특수 업무는 남자 의사의 조수라기 보다는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남성으로서서는 대치할 수 없는 특수 분담자인 것이다.

실제적인 진료업무에 있어서도 치료의술의 발전 치료상의 정밀기계 도입 의사의 손부족들의 여건은 간호원들의 업무가 진료보조라기 보다는 특수 진료담당(마취사, 모니터 담당원, 특수계기 감시원, ICU나 CCU의 있어서의 한정된 특수진료담당)으로 발전된 실정에 있다.

주사를 놓는다거나 수술기계를 소독한다거나, 봉대를 감는다거나 하는 따위는 간호원업무 중에도 원시적인 것이며 진료보조 영역이하의 “레이텐”이나 “에이드니스”로서도 대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치료의술의 고도화 사회발전의 다원화나 복잡성은 좀 더 교상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를 간호원들에게 맡기고 있다고 주장하여도 옳다고 믿는다. 그러기에 앞을 내다보는 의학교육가나 의료 정책자들은 간호원의 대학 교육과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 간호학이 지향하는 바 “독립된 학문을 바탕으로 진료면에 있어서 만능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등의 전인간호 즉 인간중심의 완전간호를 담은 인간학이다”함에, 우리 의료인들은 동의할 뿐 아니라 사회의학의 발전과 실천을 담당할 역군을 양성하는 특수 사회학이라고도 간파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업무의 한계만을 따진다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의사의 지시나 충고를 받는 것은 일을 좀 더 원만히 수행할 수 있고 책임을 덜 지려는 겸해한 태도이므로, 간호원으로서도 애써 취할 바 태도이나, 사회학의 다양성으로 미루어서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활동분야도 있음을 우리 의료인들이나 행정 책임자들은 인정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오늘이 심포지움의 주제는 “간호교육의 혁신”으로 되어 있다. 간호 교육 담당자 여러분이 길러낸 간호원들이 바람직한 일꾼으로서 자기 직책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 모임을 가졌으며, 이 곳에서 논의된 것들이 금후 간호교육의 개혁에 이바지할 재료가 될 것을 기대하는 줄로 믿는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를 금후 간호교육의 개혁에 있어 현재의 상황만을 검토하여 개혁을 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5년 내지 10년후의 간호원상은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 마저도 염두에 두고 간호교육개혁에 나서기를 당부하는 입장에서 기나긴 나의 prolog 를 진술 하였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사회변천에 따른 간호업무의 다양화와 아울러 사회적으로 요구에 적응할 간호계의 태세마저도 갖추면서 교육내용을 이에 부합시키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연자는 주장하는 것이다.

이제 병원 행정 담당자였던 내가, 또는 한 사람의 의사로서 간호원상의 바람직성 여부에 대하여 몇가지 구체적인 사실들을 들면서 문제점을 제기하여 보려한다.

우선 현 사태에서 바람직성을 전수로서 따진다면 겨우 급제질에 다다를 정도라는 것을 알고 싶다.

간호원의 업무는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직무상 조정이 더 많이 필요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조정이 잘 못 될 때에 불

친절, 무성위, 인간성 상실, 비협조, 기계적 활동이라는 낱말들로 표시되어 바람직한 간호원상을 흐리게하는 것이다.

환자나 그 가족은 간호원의 지식이나 기술면에 대하여서는 아는 바 적음으로 이런면에 대한 불평은 적으나, 위에서 정신적 자세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크고 예리한 관찰을 더우기 어떤 선입주견을 가지고 봄으로 지나칠 정도로 불평불만이 많다는 데 특히 가족이 동거하는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유의하여 간호교육에 큰 역점을 두어서 마땅하리라 믿으며 제도적으로도 조속히 개혁되어야 할 점이라 믿는다.

병원사회에 있어서의 간호원의 위치는 그 차지하는 인구구성의 비율로 보든지 환자와의 접촉하는 시간이나 업무량으로 보아서 간호원들의 움직임은 병원 분위기 조성에 중추적인 구실을 하며 사기에 직접 관련되며 나아가 의료활동의 실효를 좌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행정 당국은 간호과의 활동이나 업무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게되며 크나큰 기대를 하려하는 것이다. 병원장실을 찾는 사람의 많은 부분이나 병원 투서함에 나타나는 많은 투서가 간호원업무에 대한 불평, 불만이 제일 많다는 것만을 알리면서(물론 그 불평불만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다)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사실은 간호업무를 신성시 하지도 않고 간호원을 성직자로 대하지 않으면서 간호원에게는 희생, 봉사, 청렴, 무사들을 어디서나 기대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기도 하나, 현실이 이러하니, 간호원들은 이 현실에 따르도록 최대의 노력을 할 지니어야 할 줄로 시인하고 그 업무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대다수의 종합병원은 그 설립목적이나 활동분야가 자기 다를 수가 얼마든지 있다. 교육위주의 병원, 선교를 목적삼아 경영하는 병

원, 특수분야 개척의 병원들이 있어 그 운영방침이나 종사원에 대한 요청이 판이할 수가 있다. 간호원으로서 이런 특수병원이나 직장에 응모하여 종사하게 된 이상 그 방침과 요청에 따라야 한다. 소극적으로 규칙위반이 없도록 할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병원 사명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기 비위에 거슬릴 때에는 아무말 없이 이런 병원을 떠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급전적 대우가 좀 좋거나 자기가 일시 기우할 처소가 마련된다는 생각에서 지원하여 그 병원 간호업무에 종사한 이상 그 병원의 선교방침이나 원내 특수활동을 비판만 하고 협조하지 않는 것은 가질바 태도가 아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언제나 자기가 종사하려는 직장선택에 있어서는 깊은 고려와 사전 판단이 앞서야 한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 혜택만에 유의하는 것은 성숙된 인격을 요구하는 전문직간호원의 취할바 자세가 아니다. 병원은 영리기관은 아니나 경제를 무시하고 경영할 수는 없는 것이니 간호원들도 관리 업무에 경제성을 늘 유의하여야 한다.

현대간호의 특징은 전인간호(total care)에 있다함은 말할나위도 없는 진실이다. 환자의 육체, 정신, 감정 전체를 종합적인 하나의 인격 혹은 인간으로 간호하는 것이다.

간호업무는 그 어떤 직업분야 보다도 간호원 자신의 체력, 정신력 그리고 감정적인 면까지도 거의 동등하게 또한 동시에 활용시켜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전인간호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실시 못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전인간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로서 전적으로 간호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도상의 결함, 병원 여건의 불비들이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간주되기는 하더라도, 간호원들의 정신적인 자세라든가 몰가짐이 아직

미급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히 근년 간호원의 수급 계획에 맞추기 위하여 시설미비 교직원 총원 미급의 간호학교가 많이 생겼고, 가정 교육이나 환경이 부실한 가정의 자녀들이, 취직율이 좋다는 직업으로서의 간호원을 지망하게 되어 질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들이 태동하게 되었다. 간호원으로서의 귀중한 정신적 자질이 부족한 이들에게 간호기술이나 지식마저도 시원치 못하게 교육시켰으니, 어찌 바람직한 간호원상을 기대할 수만 있겠는가. 피스 차장이 손님을 짐작처럼 다룬다는 세평이 우리사회에 있다. 이런 말이 요새 병원사회에서 심심치않게 들리게 되었으니 문제가 된다. 현대사회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humanization)이라고 떠드는 마당에 환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는 규탄받아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손부족으로 전인간호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일부 간호원의 구실은 응남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의 현실로는 환자가족, 간호보조원이 원내에 있기 때문에 전인간호가 오히려 게을리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면이 있음을 시인하여야 한다. 제도상으로는 병원 여건상으로도 이 전인간호가 곧 충분히 실시되도록 간호 교육자나 간호행정가는 유의하여 병원행정당국에 큰 압력을 가하여 볼 시기가 되었다고 믿는다.

한편 간호의 대상자들은 임상간호나 보건의간호를 막론하고 전혀 제한이 없는 대중전체이러는데 간호업무의 어려운 점이 있다. 매일 대하는 사람들은 의사나 의료 종업원, 사무직원 이외에도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아무런 제한이 없어 조정의 폭은 넓어지기 마련이며 간호원의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운 입장이 쉽게 이해될 만하다. 이중에서 의사와의 인간관계나 환자 및 그 가족들과의 인간관계는 원내에서 늘 문제와

초점이 되며, 이것의 원활한 관계가 주로 바람직한 간호원상의 결정요소가 된다는데 이의가 없다.

병원사회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대한간호 Vol. 7; No. 2 13—34, 1968)를 다룬 논문에 의하면 “의사의 입장에서 본 간호원의 가질 바 자질”로서 협조 26.85%, 친절 25.0%, 일의 능률 21.3% 각기 차지하여 우선 협조와 친절을 의사들은 간호원에게 요망하고 있다.

또 한편 급변하는 사회변천에서, 간호직이 전문적으로 확립되는 것은 시급한 일이며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사무적이면서 능률적인 간호원 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실제의 여론조사에서는 간호원 자신들을 제외하고는 의사나 환자가 다 함께 친절하고 동정적인 간호원을 요망한다는 현실적인 사실이 있다는데 간호원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간호원의 이상형	응답율(%)		
	간호원	의사	환자
사무적이면서 능률적인 간호원	46.62	43.52	20.4
친절하고 동정적인 간호원	33.22	47.32	77.90

대인관계의 원활을 요망하는 바 됨으로 이의 과탄은 궁극적으로 간호원의 불친절, 무성의, 비협조라는 표현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간호원상을 덕칠하여 놓는 결과가 된다는데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간호원은 개인이지만 진료업무나 간호업무는 집단기능인 것이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혹은 한 사람의 순간적인 실수나 늦음으로 하나의 생명이 좌우될 때도 있고 동료 팀멤버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팀멤버의 상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협조가 우리 사회전반에서와 같이 예의없이 진료팀에서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우리의 큰 병폐인 것이다.

끝으로 의사의 입장에서 말할 때, 시간관념을 초월한 간호원의 근무태세나 기계적인 활동이 지양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교대시간이 가까와오면 시계 들여다 보기에 여념이 없는 듯하며 다음 인계자에게 중환 환자를 어서 바빠 넘기려 하는데에만 관심이 있고 좀 더 열성적인 간호가 근무시간이 남은 줄을 모르면서까지 열 증하는 자세를 자주 보았으면 하는 것이 근무시간의 관념이 적은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늘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모습이라고 하겠다. 또 의사들은 환자치료에 관련된 지시가 너무도 기계적으로 간호원에 의하여 이행되는데 불만이 있다. 어떤 지시가 내렸다면 간호원은 모름지기 그 지시의 인유된 바 이유와 근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 갑자기 변한 사태에 임기응변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의사와 협동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종이에 쓰여있는 지시사항을 기계적으로 쉽게 이행하는데만 그치고 머리를 써서 좀 더 나은 적절한 치료를 하려는 데는 관심이 없는 듯한 아쉬움이 있다. 이런 근무태세라면 간호보조원으로서도 충분히 감당케 할 수 있다는 이론이 성립된다.

현대적이고 탁식한 의사는 간호원을 직업적으로 등등시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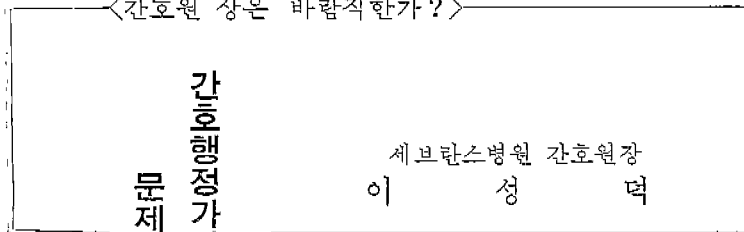
의학은 나날이 분화 다기하여 지고 있으며 따라서 의사들은 그들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잘 훈련된 교육을 받은 간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며 이들과의 이 지적협조로서만이 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단일 간호원이 자기자신을 단순한 의료보조로 자처하고 그저 의사의 지시를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할 뿐, 환자를 위한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않

고 움직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과연 참다운 간호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또 여러가지 대내, 대외적인 일로 골몰하는 의사들의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지시를 간호원들이 일깨워주는 치사야말로 협조자로서 몇몇한 구실임을 우리 의사들은 인정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간호원은 또한 특수 전문직책을 맡은 팀멤버의 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있을 수 있는 진료상 내지 간호상의 잘못된 사실을 숨김 없이 팀지도자인 주치의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간호원은 근무중 환자의 침상을 거의 떠날 수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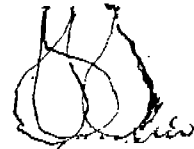
으나 의사는 하루에 두, 세 차례 환자를 방문할 뿐 전경과와 환자의 병증의 변화를 모조리 파악하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격이 변한 병증이 간호원의 과오에 기인할 수도 있는 일이니 자기의 근무시간만 경과되면 자기 책임은 아니라 잘못된 이기적인 생각은 버리고 솔직하게 모든 사연을 주치의에게 말리어서 적절한 대응대책을 강구케 하는것이 집단기능의 적극적이면서도 유효한 행동인 것이다. 간호원은 자기의 실수를 은폐하려는 나머지 기본적인 책임을 잊을 수는 없는 것이다.

<간호원 상은 바람직한가?>



간호행정가
문제와
과제

세브란스병원 간호원장
이 성 덕



I 바람직한 간호원 “상”

사람들은 대개 어떤 대상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인상이나 이상을 갖고 있다. 그들은 간호원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혹은 명확하게, 또는 부정확하게 그들대로의 인상이나 이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어린애는 어린애로서, 성인은 성인으로서, 또는 환자로서, 의사로서 그들 나름대로의 간호원과의 연관성에 따라 제각기의 느낌을 갖고 있을 것이다. 간호원 자신들도 직업으로서 간호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그들 역시 제각기의 뚜렷한 의의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어느 때는 만족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불만이기도 하며 때로

는 이 불만을 해소해 보기 위해 노력해 보기도 한다.

인간에게는 누구나가 자기가 이루고저 하는 이상이 있다. 그러나 이 이상을 이루어 나가는 때는 현실에 존재하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 어려운 중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마음 가짐으로부터 생기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며, 자신의 부족으로 오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우리 간호원에게도 퇴어지고자 하는 이상이 있다. 오늘날 간호사업이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의학의 전반적인 성장뿐 아니라 건강의 사회적 의의에 대한 현대적인 인식과 보조를 같이 하려하고 있다.